

## 'DMZ 평화의 길' 강화~고성 7개 노선 우선 개방

등록 2021.11.11 09:23:39



[서울=뉴스시스] 이현주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 등 7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관광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7개 노선을 우선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 노선으로 조성됐다. 2019년 4월부터 파주, 철원, 고성 등 3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개방해 관람객 1만5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2019년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번에는 노선 정비와 철새 보호 등을 위해 연천, 철원, 인제 등 3개 노선을 제외한 7개 노선을 개방한다. 특히 파주와 고성 노선의 재개방과 함께 강화, 김포, 고양, 화천, 양구 5개 노선을 처음 선보인다.

모두 무료로 운영한다.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 '디엠지 평화의 길' 누리집과 걷기 여행길 정보제공

모바일 앱 '두루누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백신접종 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 한해 이용을 예약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용품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운행차량 정기 소독 등을 통해 모든 현장을 철저하게 방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newsis.com](mailto:lovelypsyc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